

#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

## -성별 ·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Study of the Time Use of Unmarried Single Households

-With a Focus on Meal Activities and Leisure b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외래강사 강은주

서울시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팀 원 김민주

University of Ulsan, Child and Family Welfare

*professor* Song, Hye-Rim

University of Ulsan, Child and Family Welfare

*Instructor* Kang, Eun-Joo

Seoul Dongdaemunku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Member* Kim, Min-Joo

###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ime allocation in unmarried single household. It examined meal activities and leisure b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using the 2014 time-use survey data of 1,664 case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a paired t-test, and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4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time for meal activities in unmarried single households was 125 minutes. Most meal activities consisted of eating activities, and the meal preparation time was about 19 minutes. Females spent much longer time in meal preparation than males. Leisure time was 285 minutes, and the longest time spent of leisure activities was spent using medias. Males' total leisure time was longer than females'

\* 주저자: 송혜림(hrsong@ulsan.ac.kr)

total leisure time. Finally, employed individuals spent much longer periods of time in leisure than unemployed individuals. All the results showed differences between genders and employment status.

**Key Words :** 1인가구(single households), 생활시간사용(time use), 식사활동(meal activities), 여가활동(leisure)

## I. 서론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에서 1인가구가 1순위를 차지, 그 이후로도 1인가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5). 통계표준어의 개념상 1인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2016년 현재 전체 가구는 1936만7696건이고, 그 중 1인가구는 539만7615건으로 전체 가구의 총 27.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현재 1인가구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현상, 즉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과 함께 핵심적인 일상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최근 부각되는 혼밥(혼자서 식사), 혼여(혼자서 여행), 혼공(혼자서 공부), 혼강(혼자 강의 수강) 등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단위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바, 이제 1인가구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현상이며, 따라서 1인가구의 일상생활실태와 요구도, 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자원관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들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충분치 않은데, 특히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자체에 대한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가족정책, 건강가정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할 때, 1인가구를 혼자 사는 개인으로 보면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대부분은 가족이 있으나 현재 혼자 사는 가족원으로 규정하면 가족정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송혜림, 2016).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시간 사용, 여가생활, 경제적 자원 관리, 사회적 관계망 등의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설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1인가구의 구성을 보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분포되어 있어<sup>1)</sup> 1인가구 안에서도 집단별로 생활의 양식과 자원관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생활주기 혹은 연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별 생활양식과 실태, 요구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혼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사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내용 중 식사 그리고 여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1) 2010년 통계에서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39세 이하 38.7%, 40-50대 29.4%, 60세 이상 31.9%,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통계청)

1인가구를 연령별 혹은 혼인상태별로 구분할 때 청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노년기 1인가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집단별로 1인가구가 되는 동기와 생활상태 그리고 특징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동일한 한 집단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학업과 직장 등을 이유로 원가족을 떠나 새롭게 가족을 꾸리기 전 잠시 거처하는 임시적 가족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최근 결혼의 지연,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주목할 수 있다(우민희 외, 2015). 청년 1인가구는 이처럼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고 이들 집단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서 ‘혼자 놓고 혼자 먹는’ 현상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sup>2)</sup> 미혼의 청년 1인가구가 식사활동과 여가활동에 투입한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의미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사는 자유로운 삶, 화려한 싱글과 같은 용어는 주로 청년 1인가구를 묘사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청년 1인가구의 식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은 1인가구 관련 후속 연구에 다양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시간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와 조사결과를 보면 생활시간 영역별 시간배분에 있어서 성별·취업별 차이가 크다는 점<sup>3)</sup>, 특히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취업한 집단과 비취업 집단(주로 학업)의 생활실태에 있어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차이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 1인가구는 20-30대 미혼 1인가구로 규정하였는데, 2016년 현재 1인가구 중 미혼은 40.9%, 기혼은 59.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본 연구는 이러한 미혼 청년 1인가구에 주목,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2015년 통계청이 제공한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생활시간사용은 단지 시간량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생활시간사용을 통해 일상생활 자체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시간 배분의 균형, 일과 생활의 조화 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도출하여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1인가구의 실태 및 생활 특성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다양하고도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각 가정의 가족 세대구성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수 역시 감소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에서도 1인가구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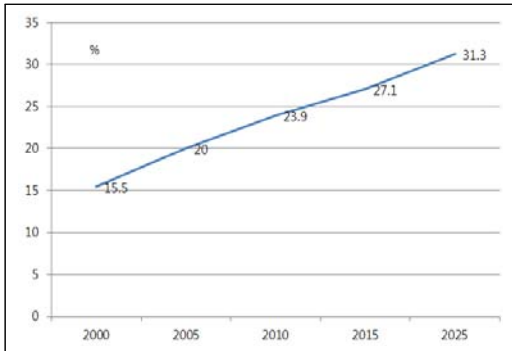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 수는 539만 7,615가구로 전년(520만 3,440가구)보다 37.3% 증가했고(한국일보, 2017),<sup>4)</sup> 1인가구가 총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14.4%, 2010

2) 네이버 이슈(2016.2.20), “1인가구가 바뀐놈은 먹고 살고 노는 풍경”; 허윤경 외(2016); 박현우 외(2015); 윤소영(2017)

3)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서지원 외(2017),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사용구조와 주관적 시간빈곤; 장연주 외(2012),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조미라(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4) 한국일보(2017.10.6.), “1인가구가 이렇게나… 소형 오피스텔이 답이네”.

년 18.0%, 2014년 26.8%, 2016년 27.2%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sup>5)</sup> 그리고 1인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통계청 (2025년은 전망치)

〈그림 1〉 1인가구 현황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 형태로 나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혼자만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지칭하여 ‘나홀로족’과 ‘일코노미(1인과 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진 뜻)’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일코노미는 ‘혼자 살아도 잘 살자’는 모토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YOLO(You Only Live Once)’ 문화와도 맞물리기도 한다(뉴스핌, 2017)<sup>6)</sup>.

1인가구의 증가 배경은 여성고용 확대, 교육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고소득층의 결혼과 출산 연기 혹은 기피), 소득의 감소(결혼 비용 충분치 않아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짐), 대도시 형성, 개인주의 확대, 초혼연령 상승, 수명 연장, 고령화, 통신 발달 등 후기 산업사회 사회구조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조영희, 2017).

이러한 1인가구의 특성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대부분 혼자서 밥을 먹거나 여가를 즐기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혼밥을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9%에 달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절반(52%) 이상이 세끼 모두 혼자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혼자 공연을 보러 다니는 혼공족 역시 매해 증가하고 있다(송혜림, 2017 재인용).

1인가구로 살아감에 있어 힘든 점으로는 경제적 측면, 외로움과 불안감, 가사활동, 치안, 주변의 시선 등이라 하였고<sup>7)</sup>, 특히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빈곤율이 다인가구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아 소득, 주거, 건강 등의 차원에서 신 취약계층이 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인가구의 경우 월세 등 임대료 부담이 크고 1인가구의 빈곤 자체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1인가구의 주거 관련하여, 주거공간의 의미는 잠자는 곳 > 쉬는 곳의 순서로 나왔다. 또한 적절한 주거공간의 크기는 10-15평이 1순위로, 그러나 현재 주거 공간의 크기에서는 5-10평 미만이 1순위로 나타나 희망과 실제 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원룸 > 아파트 > 빌라/연립주택 > 오피스텔의 순서로 나타났다(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6).

이처럼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요구에 맞춰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솔로이코노미 상품의 개발,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물 확대, 소포장과 간편조리음식 활성화, 작고 스마트하고 개인화된 생활제품 등을 찾아볼 수 있다(조영희, 2017 재인용).

## 2.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과 내용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1인가구 수와 더불어 1인가구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인가구 관련 연구<sup>8)</sup>는 크게 1인가구의 주거(형태), 경제 및 소비, 여가와 문화, 식생

5) 연합뉴스(2017.4.13), “청년 1인가구, 10평 집에 살며 1년 3개월만에 이사”.

6) 뉴스핌(2017.10.6), “나혼자 산다, 1인가구용 ‘일코노미 재테크’”.

7) KBS 1 생로병사의 비밀(조영희, 2017 재인용)

활, 사회관계망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거, 주생활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1인가구의 주거 관련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좀 더 큰 틀에서 1인가구의 주거, 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들까지 다양한 주제로 분포되어 있다. 1인가구의 수납가구 사용 요구(최은정·박수빈, 2017), 주거서비스 요구(박수연·김영주, 2013), 주거환경 만족요인, 스마트홈 서비스 선호도(이은주·권오정, 2015), 주택유형별 범죄 안전성(황성은·강부성·박지연, 2013),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신상영, 2010) 소득별 주거선택 영향 요인,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엄연실·권오정, 2014) 등의 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 실제 1인가구의 주거, 주택, 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른 한 편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방향(김태주·안정근·정오락, 2015), 주택법제 개선방안(배건이·정극원, 2014), 주택정책 방향(이재수·양재섭, 2013), 주택수요 예측(신미림·남진, 2011) 등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1인가구의 주생활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축적되어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부각되는 2010년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와 주생활 분야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거형태, 주거 특성, 주거환경과 지역, 요구도 등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서울처럼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다음으로 1인가구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가구이므로 이들 집단의 소비와 구매 그리고 경제적 특성 등과 관련된 분석이 활성화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의 주제는 1인가구의 구매, 지출, 소비생활과 관련된 연구, 재무관리와 만족도 그리고 1인

가구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시장 등 외부환경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구매, 지출, 소비생활과 관련된 주제로는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충동구매 차이(이철성·김장현, 2016), 구매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김희연, 2016), 품목별 지출(박문수 외, 2015), 구매행동(원종현·정재은, 2015), 문화소비지출(박근화 외, 2015),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성영애, 2013) 등이 있다. 다음으로 1인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서명희·김영희·이현옥, 2017),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정운영·정세은, 2011)와 같이 1인가구의 재무관리와 삶의 만족도를 함께 분석한 연구도 있다. 그리고 1인가구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시장환경 관련 연구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브랜드 발전방안(여정은·김승인, 2016), 1인가구 관련 외식업 서비스 방향, 오프라인 매장 선택 요인(김은경·조춘한, 2015)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비 및 경제생활 관련, 1인가구의 구매활동과 소비행태, 다인가구와의 비교 등의 주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집단별 분석도 물론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청년-중장년-노년-남성-여성 등 1인가구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특정 1인가구 집단의 소비행동이나 구매의사결정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인가구의 식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1인가구의 여가를 주제로 한 연구의 동향을 보면 여가활동, 여가와 행복, 여가시간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연구의 결과, 중고령자 1인가구의 경우, 여가활동에 있어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울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 1인가구에게 있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8) 네이버 학술정보에 '1인가구'를 검색하여 2000년대 이후의 KCI에 등록된 연구들로 정리함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년 1인가구의 여가적 삶과 행복(윤소영, 2017)에 대한 연구의 결과, 적극적인 여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노인 1인가구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연구(강은주, 2017)에서는 노년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다 교제활동, 친분있는 사람 돕기, 자원봉사 등 누군가와 함께 하는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송원구·임지은·도해용, 2015)에서는 1인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여행을 더 많이, 더 오래 다니고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성별, 연령, 지역규모, 학력, 소득, 혼인상태, 직업, 거주지역에 따라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이나 여가시간과 같은 주제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시간 그리고 그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인가구의 식사활동, 식생활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1인가구의 일상적인 식생활, 외식, 식생활만족도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전반적인 식생활 태도를 파악한 허윤경과 심기현(2016)은 1인가구 가운데 하루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끼니를 자주 거르며 1인가구의 여성일수록 조리가 간편한 요리보다 한식 위주의 가정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식생활은 규칙적이지 못하고 가공식품이나 외식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 형태의 식생활유형이 외식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장용현·이보순·이종호, 2016)에 대한 연구 결과, 1인가구는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식 시, 남성의 경우 한식을 선호하며 여성의 경우 한

식과 양식을 동일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소비자들의 외식업 선택에 있어서는 식생활유형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결과, 편의추구형과 건강추구형은 서비스, 품질, 접근성, 경제성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외식업을 선택하는 반면, 경제추구형은 품질을 고려하여 외식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맞춤형은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필규(2016)는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하여 하루 세끼를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약 2~3배 정도 높고 매일 혼자 외식하는 비율도 다인가구에 비하여 약 2배 정도가 높으며 연령별 외식 장소 및 선택이유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의 생활, 경제적 특성이 다양하기에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박재홍과 유소이(2016)의 연구에서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식생활 만족도에 있어 보통이하를 포함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거주지역,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 가정내 식사정도, 기능성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가구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를 이용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비교한 연구(이지유·신애선, 2015)도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1인가구의 경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가 어렵거나 잦은 외식 등의 이유로 식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자되는 '혼밥'이 실제 보편화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1인가구의 식사활동 관련 시간사용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식생활 실태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인가구의 관련된 선행연구로 노인 1인가구의 현황 및 커뮤니티센터 요구도(심애리·박성신, 2017), 소셜로봇의 역할(최민영·김승인, 2017), 노

인 1인가구의 특성(송유진, 2007),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요인(이선희·윤동현·고준환, 2015), 1인가구 생활실태 분석(김도희, 2015), 1인가구의 심리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지영·이연숙·안소미, 2015), 결혼 가치관(호정화, 2014), 탈북 1인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김현아·조영아·김요완, 2014), 한국과 미국의 1인가구 특성 비교(이현정, 2012) 등, 1인가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망, 인식과 가치관, 집단별 비교 등의 주제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분석, 생활시간 자료를 활용한 1인가구 연구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생활필수시간-노동(학업)시간-가사노동(돌봄 포함)시간-여가시간 배분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식사시간 그리고 여가시간 배분은 어떠한가?

셋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표 1〉 생활시간 영역과 내용

본 연구에서의 범주	201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중분류/소분류	대분류
노동과 학습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일
	학교활동, 학교활동외 학습	학습
	출·퇴근, 기타 일 관련 이동, 학습관련이동	이동
가사노동 (돌봄 포함)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정관리
	함께 사는 만 10세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은 그 외 가족 돌보기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이동
여가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행동, 생활시간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 행동	기타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관련 활동	이동
생활필수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개인유지
	개인유지 관련 이동	이동

넷째,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관련 주관적 인식은 어떠한가?

##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30대 미혼 1인가구이며, 이 집단을 청년 1인가구로 규정하였다. 시간일지 자료를 통해 측정된 생활시간은 일, 학습, 이동,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

가활동, 기타, 이동, 개인유지, 이동 등의 대분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은기수 외, 2015; 김외숙 외, 2016)를 참조하여,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 노동과 학습-가사노동(돌봄 포함)-여가-생활필수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을 분석함에 있어 취업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주목하였고, 따라서 실제 취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64)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성	972(58.4)	건강상태	상	787(47.3)
	여성	692(41.6)		중	704(42.3)
취업	합	1,242(74.6)		하	173(10.4)
	안함	416(25.0)	월소득	200만원미만	866(52.0)
	일시휴직	6(.4)		200-300만원	468(28.1)
거주지역	수도권*	702(42.2)		300만원이상	330(19.8)
	비수도권	962(57.8)	직업유형**	관리전문직	358(28.8)
연령대	20대	912(54.8)		사무서비스	580(46.7)
	30대	752(45.2)		기술직	206(16.6)
교육수준	중졸이하	14(.8)		단순노무	98(7.9)
	고졸	342(20.6)	종사상지위***	상용	806(65.0)
	전문대졸이상	1308(78.6)		임시일용	296(23.9)
주거형태	자가	288(17.3)		자영업	138(11.1)
	전세	326(19.6)	(임금근로자) 취업형태****	전일제	972(87.7)
	월세	1012(60.8)		시간제	136(12.3)
	기타(무상)	38(2.3)	주평균근로시간*****	40시간미만	222(17.9)
주거형태	40시간미만	222(17.9)		40-50시간	538(43.3)
	40-50시간	538(43.3)		50시간이상	482(38.8)
주거형태	50시간이상	482(38.8)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경제활동인구 41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미포함

\*\*\* 무급가족종사자 2명, 비경제활동인구 41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미포함

\*\*\*\* 임금근로자 1,108명 = 상용 806명, 임시일용 29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 주평균 근로시간 비경제활동인구 416명, 휴가 및 일시 휴직 6명 미포함



###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생활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정도, 시간사용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생활시간배분에 대한 독립변수(성별/취업여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석은 SPS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1인가구를 청년 1인가구로 규정한 바, 시간조사자료에서 1인가구는 총 23,804건이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20-30대 미혼 청년 1인가구는 1,664건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많고(58.4%),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74.6%이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그 이유는 학업이 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취업준비(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57.8%)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는 20대가 더 많다(54.8%).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고(78.6%), 주거형태는 월세가 가장 많다(60.8%). 건강상태는 보통이다와 좋(은편이) 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이며(89.6%),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다(52%). 취업한 경우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가장 많고(65%), 그 다음이 임시일용(23.9%) 그리고 자영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일제가 87.7%로 시간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형은 사무/서비스직의 비율이 가장 높고(46.7%), 그 다음이 관리전문직(28.8%), 기술직(16.6%), 단순노무직(7.9%)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50시간인 경우가 4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시간 이상(38.8%), 40시간 미만(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 실태

#### 1) 생활필수-노동(학업)-가사노동(돌봄포함)

-여가활동 시간 배분 실태

먼저 대분류에 해당되는 생활필수, 노동과 학업, 가사노동(돌봄 포함) 그리고 여가활동에 배분된 시간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청년 1인가구 시간사용량 (N=1,664)

(단위: 분/일)

생활필수		노동(학업포함)		가사노동		여가활동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698.1	122.351	372.3	261.686	63.5	79.874	287.3	192.058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 698분, 즉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짧아 1시간 정도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경우 생활필수시간은 674분, 노동시간(학업 포함)은 263분, 가사노동시간은 124분, 여가생활시간은 289분이다(통계청, 2015). 따라서 전체 응답자에 비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시간과 노동시간은 더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훨씬 짧으며 여가활동시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30대 미혼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성별 그리고 취업활동 여부에 따라 생활내용이 많이 다를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독립변수로 네 개 영역에 투입된 시간량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사용의 차이

(단위: 분/일)

구분	성별		t
	남성 M(SD) (N=972)	여성 M(SD) (N=692)	
생활필수	682.5(119,960)	719.9(122,791)	-6.190***
노동(학업포함)	395.6(263,943)	339.6(255,094)	4.331***
가사노동	47.1(66,306)	86.6(90,919)	-9.718***
여가활동	297.3(200,753)	273.1(178,322)	2.585*

\*p<.05 \*\*p<.01 \*\*\*p<.001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은 네 영역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생활필수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길고, 취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노동시간이 남자는 4시간 8분, 여자는 2시간 26분으로 남자가 더 길며, 가사노동시간은 여자 3시간 28분, 남자 47분으로 여자가 훨씬 길게 나타난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전체 응답자의 생활시간배분 실태와도(통계청, 2015)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여부 역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취업 집단의 경우 당연히 취업노동시간이 길며, 이로써 나머지 생활필수,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에 배분하는 시간량은 더 짧다.

이와 같이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 생활필수-취업노동-가사노동-여가 등 생활의 주요 영역에 배분한 시간량은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청년 1인가구가 식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세부항목) (N=1,664)

(단위: 분/일)

식사	간식·음료		식사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정리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b>74.9</b>	31.227	<b>31.5</b>	33.014	10.4165	0.7	5.747	7.4	12.906	0.00	0.00

9) 미취업대상자의 경우에도 학업, 구직 등에 투입한 시간이 노동(학업포함) 영역에 포함됨

10) 생활필수영역의 식사하기, 간식하기 항목과 가정관리 영역에서의 식사 간식 준비, 설거지, 뒤처리 등을 합하여 식사활동으로 명명함

〈표 5〉 청년 1인가구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시간사용 차이

(단위: 분/일)

구분	경제활동 상태		
	취업 M(SD) (N=1,242)	미취업 M(SD) (N=426)	t
생활필수	694.7(121,191)	707.7(124,993)	-1.844*
노동(학업포함)	407.4(258,567)	269.9(242,175) <sup>9)</sup>	9.853***
가사노동	60.2(77,305)	73.7(86,611)	-2.766**
여가활동	259.1(180,869)	369.5(200,684)	-9.952***

\*p<.05 \*\*p<.01 \*\*\*p<.001

2) 청년 1인가구의 식사활동시간<sup>10)</sup>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청년 1인가구의 식사활동과 관련된 시간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식사활동시간 총량은 125분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식사와 간식은 106분 그리고 음식 준비가 18분 정도로 나타났다.

〈표 6〉 청년 1인가구가 식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N=1,664)

(단위: 분/일)

식사활동시간 총량		식사 및 간식		음식 준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24.9	50.737	106.4	44.425	18.5	27.425

이를 소분류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총 125분 정도의 식사활동시간 중, 식사에는 75분, 즉 1시간 15분 가량을 배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활동인 간식과 음료에 31분, 식사준비에 10분, 설거지와 식후정리에 7분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사활동시간의 대부분은 식사시간이며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에 투입하는 시간은 매우 미미한데, 이는 청년 1인가구가 음식 준비와 조리, 뒤처리 등을 스스로 하지 않고 외식, 배달, 가공식품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식사 및 간식시간은 1시간 56분, 즉 116분으로 나타난 바(통계청, 2015), 전체 응답자에 비해 청년 1인가구의 식사시간(식사 및 간식 106.4분)은 다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자 사는 젊은 1인가구의 특성 상 하루 두끼 먹는 경우도 많고, 혼자 식사하거나 외식, 가공식품의 짧은 조리 후 식사, 1인분의 식사 준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고<sup>11)</sup>, 따라서 식사준비 시간이 다인 가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식사활동시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식사활동시간  
(단위: 분/일)

구분	성별		
	남성 M(SD) (N=972)	여성 M(SD) (N=692)	t
총 식사활동시간	121.9(46.641)	129.2(55.745)	-2.806**
음식준비(중)	15.2(23.179)	23.3(31.887)	-5.694***
식사	76.3(30.720)	73.1(31.852)	2.073*
식사준비	9.0(15.446)	12.4(19.160)	-3.854***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0.4(4.932)	1.1(6.711)	-2.316*
설거지, 식후정리	5.8(10.689)	9.8(15.196)	-5.966***

\*p<.05 \*\*p<.01 \*\*\*p<.001

총식사활동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7분 가량 더 긴데, 세부적으로 볼 때 음식준비시간, 식사준비시간, 간식 등 만들기, 설거지와 식후정리 등에 투입하는 시간은 여성이 더 많고 식사시간 자체는 여성이 더 짧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활동시간이 더 길게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식사하는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식사준비 및 뒷정리시간에 기인한다. 남성의 경우는 준비하고 뒷처리하는 시간보다 식사하는 시간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결과로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활동시간의 차이를 보면, 모든 세부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청년 1인가구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활동시간  
(단위: 분/일)

구분	취업여부		t
	일을 하였음 M(SD)(N=1242)	일을 하지 않았음 M(SD)(N=416)	
총식사활동시간	218.7(32.821)	214.7(22.871)	-2.422*
식사 및 간식(중)	108.4(41.700)	100.4(51.483)	2.880**
음식준비(중)	17.5(27.217)	21.6(27.749)	-2.661**
식사	76.0(31.616)	71.9(30.018)	2.313*
식사준비	9.8(17.066)	12.1(17.389)	-2.322*
설거지, 식후정리	7.0(12.652)	8.7(13.376)	-2.323*

\*p<.05 \*\*p<.01 \*\*\*p<.001

취업을 한 경우 총 식사활동시간은 219분 정도, 즉 3시간 49분이며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4분 정도 적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취업한 집단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집단 간 총 식사활동에 투입한 시간량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세부적으로 볼 때, 식사 및 간식 그리고 식사시간은 취업한 집단의 경우가 더 길고, 나머지 음식준비, 식사준비, 설거지/식후정리 등의 시간은 취업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즉, 현재 취

11) 엠브레인 리서치 보고서 '1인가구 관련 조사'(2015)에 따르면 20대와 30대 1인가구의 경우 40대와 50대 1인가구에 비해 하루 두끼 식사, 외부에서 사와 집에서 식사의 비율이 더 높다

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식사 시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길고, 나머지 준비 및 뒤처리 시간은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3)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시간

여기에서 여가활동시간은 여가를 위해 이동한 시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총 여가활동시간은 285.4분(표준편차 190.78455)으로, 하루 평균 4시간 45분 정도를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세부항목별로 시간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0〉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시간(세부항목)  
(N=1,664)

	(단위: 분/일)	
	평균(분)	표준편차(분)
참여활동	0.44	9.043
자원봉사	0.50	9.638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503	8.192
교제활동	45.9	51.89805
<b>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b>	<b>120.3</b>	116.79571
종교활동	5.9	40.31735
문화 및 관광 활동	8.2	33.30450
스포츠 및 레포츠	24.4	47.03562
의례활동	0.63	7.33354
기타 여가활동	49.7	80.39673
여가관련 이동	30.6	57.82107

총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세부활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타)교제)이동)스포츠/레포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나머지 여가활동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량이 절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에 투입한 시간은 매우 미미하다.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1순위로 부각되는 것은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년기 1인가구의 경우 교제활동이 52.71분으로 청년 1인가구보다 긴 반면,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22.06분으로(강은주, 2017) 청년 1인가구보다 매우 짧다. 또한 노년기 1인가구의 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등에 투입한 시간은 청년 1인가구보다 더 길어, 여가시간에 있어 같은 1인가구라 해도 세대 간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중분류 항목별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1〉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시간  
(단위: 분/일)

구분	성별			
	남성 M(SD) (N=972)	여성 M(SD) (N=692)	t	
대분류	총 여가활동	297.3(200.753)	273.1(178.322)	2.585*
중분류	교제활동	43.6(50.710)	49.1(53.393)	-2.118*
	문화 및 관광활동	5.5(27.536)	11.92(39.749)	-3.661***
	의례활동	1.0(9.354)	0.1(2.461)	2.650**
소분류	기타 여가활동	64.8(91.725)	28.4(54.366)	10.139***
	컴퓨터·모바일 게임	37.8(78.249)	7.4(30.306)	11.024***
인터넷 정보검색	23.2(41.761)	18.5(37.046)	2.37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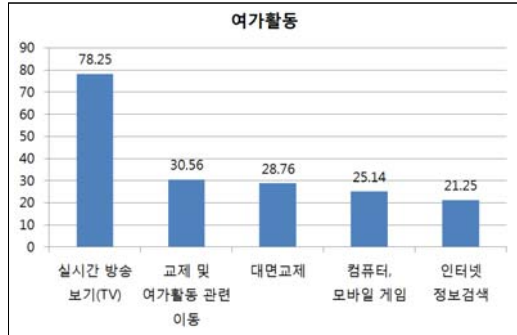
총 여가활동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어 여성은 273분, 남성은 297분 정도 나타나, 24분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분류로 구분할 때 교제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은 여성이 더 길고, 그에 비해 컴퓨터/모바일 게임, 인터넷 정보검색에서는 남성의 시간량이 더 길어, 여가활동 항목별 시간량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 1인가구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이 나타난 선행연구(우민희 외, 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 1인가구의 여가시간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되어(강은주, 2017)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중분류 항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총 여가활동시간은 259분, 즉 4시간 19분이며, 이에 비해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 369분, 즉 6시간 정도로 나타나, 확실히 취업한 경우 여가시간이 짧아진다는 당연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분류 세부항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는데,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와 레포츠, 교제 및 이동, 대면교제, 컴퓨터/모바일 게임,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항목에서 취업한 경우의 시간량이 더 짧다.

한편, 생활시간조사표에서 여가활동의 경우 소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현대인에게 어떤 여가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가활동의 소분류 항목

에12) 대한 시간량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간량에 긴 순서대로 5개 항목을 추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 5개 우선순위항목(소분류)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활동은 TV등 실시간 방송보기이며, 그 다음이 이동

〈표 12〉 청년 1인가구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사용량의 차이

(단위: 분/일)

구분	경제활동 상태			
	일을 하였음 M(SD)(N=1,242)	일을 하지 않았음 M(SD)(N=416)	t	
대분류	총 여가활동	259.1(180,869)	369.5(200,684)	-9.952***
중분류	교제활동	42.5(50,267)	55.2(55,328)	-4.148***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109.8(108,173)	151.1(134,705)	-5.665***
	스포츠 및 레포츠	21.4(44,226)	32.8(53,303)	-3.906***
소분류	기타 여가활동	42.9(71,512)	70.0(100,051)	-5.10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27.1(54,371)	40.3(65,779)	-3.686***
	대면교제	26.9(42,281)	34.1(48,053)	-2.733**
	컴퓨터·모바일 게임	19.8(56,214)	41.2(83,281)	-4.879***
	인터넷 정보검색	17.9(35,304)	31.0(50,066)	-4.939***

\*p<.05 \*\*p<.01 \*\*\*p<.001

12) 여가활동 소분류 항목은, 의무적 참여활동( 자녀교육 관련, 기타 참여활동, 국가·지역 행사 관련, 소외계층 관련, 재해주민 관련), 기타 자원봉사(친분 있는 사람 돕기, 소득 있는 활동 돕기, 가사활동 돕기, 기타 돕기), 대면교제(화상·음성교제, 문자·메일교제, 기타 교제관련 행동), 책 읽기(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송 보기(TV), 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 인터넷 정보검색,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활동, 개인적 종교 활동(종교 집회·모임 참가, 기타 종교 관련 행동), 영화관·비디오방, 연극, 콘서트,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관광·드라이브, 기타 문화·관광 활동, 걷기·산책, 달리기·조깅, 등산, 자전거·인라인, 개인운동, 구기운동, 낚시·사냥, 기타 스포츠·레포츠, 관혼상제 등 의례,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 게임, 개인 취미활동, 여가·교양 학습, 유흥,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참여·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등이 포함됨

대면교제)컴퓨터/모바일게임)인터넷 정보검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와 IT매체를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남성의 경우 실시간 방송 보기)컴퓨터/모바일 게임)이동)대면교제)인터넷 정보검색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여성의 경우에는 1순위는 같지만 2순위부터는 차이가 나서 실시간 방송 보기)이동)대면교제)인터넷 정보검색)개인운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실시간 방송 보기가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이며, 남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운동에 여성에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컴퓨터/모바일 게임이 남성에게 나타난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3.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 관련 주관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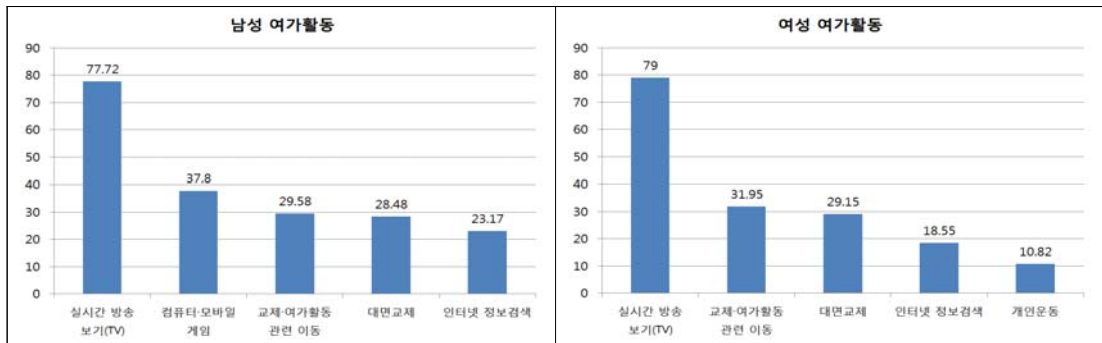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시간피곤함 정도, 시간부족감, 시간사용만족도 등 생활시간 사용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함께 파악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시간 피곤함 정도는 평소 하루 일과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는가를 나타내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피곤함의 정도가 높다. 청년 1인가구

〈표 13〉 청년 1인가구의 시간만족도, 시간피곤함, 시간부족감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시간부족감(4점 척도)	1664	2.03	0.808
시간피곤함 정도(4점 척도)	1664	1.86	0.657
<b>시간활용 만족도(5점 척도)</b>	<b>1664</b>	<b>3.09</b>	<b>0.858</b>

의 시간 피곤함 정도는 4점 만점에 1.86으로 나타나 피곤함의 정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시간부족감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높게 느끼는데 본 연구의 결과 4점 만점에 2.03으로 시간부족감을 그리 높게 느낀다고는 할 수 없다. 2014년 생활시간 조사의 전체 응답 결과에서도 시간 피곤함을 느끼는 비율이 부족감을 느끼는 비율보다 높아(통계청, 2015), 청년 1인가구의 주관적 인식의 결과가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시간활용 만족도의 경우, 시간일지를 작성한(둘째) 날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로서, 역코딩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에도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통계청, 2015) 청년 1인가구와 전체 응답자의 시간활용 만족도가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청년 1인가구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5개 우선순위 항목(소분류)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전체 가구유형 중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1인가구 중 20-30대 미혼 1인가구를 청년 1인가구로 규정, 이들 집단의 생활시간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활시간 대분류 영역인 생활필수-노동(학업)-가사노동(돌봄포함)-여가활동에 배분한 시간량을 분석하였고, 다음 단계에서 식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성별 그리고 취업여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자료는 통계청이 2015년 제공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결과이며, 분석에 포함된 청년 1인가구는 총 1,664명이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 698분, 즉 1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가장 짧아 1시간 정도이다. 성별 차이를 보면 네 가지 생활시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활필수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길고, 취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의 경험도 그렇거니와 다양한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생활시간 영역별 성별 차이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취업 집단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길고 나머지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사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식사활동시간 총량은 125분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로 나타났고 이 중 식사와 간식은 106분 그리고 음식 준비가 18분 정도로 나타났다. 즉 식사활동의 대부분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며 준비와 뒤처리 등의 시간은 매우 미미하여 청년 1인가구가 스스로 조리를 하여 먹는다기보다는 외식, 가공식품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총 식사활동시간은 더 길지만 그 결정적 이유는 식사하는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식사준비 및 뒷처리시간으로, 남성의 경우는 준비하는 시간보다 식사하는 시간이 여

성보다 더 길고,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결과로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청년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서지원 외, 2017)의 결과 청년 1인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가정관리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1인가구 남성보다 부부가구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이 더 적었는데, 이는 여성의 가정관리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활동시간의 차이를 보면, 취업을 한 경우 총 식사활동시간은 219분 정도, 즉 3시간 49분이며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4분 정도 적다. 세부적으로 볼 때, 식사 및 간식 그리고 식사 시간은 취업한 집단의 경우가 더 길고, 나머지 음식준비, 식사준비, 설거지/식후정리 등의 시간은 취업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즉,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식사 시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길고, 나머지 준비 및 뒤처리 시간은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한 경우 직장근무를 중심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오히려 비취업집단보다 식사시간은 길지만, 스스로 조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준비와 뒤처리 시간 자체는 더 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가활동시간의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45분 정도를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세부활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타<교제>이동>스포츠/레포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총 여가활동 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길어 하루 평균 24분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한 경우 여가활동시간은 4시간 19분 정도, 이에 비해 취업하지 않은 경우 6시간 정도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라 여가활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소분류 항목에서 5개 우선순위 활동을 추출한 결과, 1순위를 차지하는 활동은 TV등 실시간 방송보기이며, 그 다음이 이동>대면교제>컴퓨터/모바일게임>인터넷 정보

검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 실시간 방송 보기>컴퓨터/모바일 게임>이동>대면교제>인터넷 정보검색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1순위는 같지만 2순위부터는 차이가 나서 실시간 방송 보기>이동>대면교제>인터넷 정보검색>개인운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실시간 방송 보기가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시간을 배분하는 활동이며, 남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운동에 여성에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5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컴퓨터/모바일 게임이 남성에게 나타난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곤함의 정도는 높은 편으로, 시간 부족감은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그리고 시간활용 만족도에 있어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필수시간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식사활동시간에서 파악한 바 예컨대 조리나 설거지 등과 같은 시간이 매우 미미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가사노동시간이 124분인데 비해 청년 1인가구의 경우 63.5분으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1인가구는 1인이 생계와 취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가구이며, 따라서 날마다의 가정경영과 자기돌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적게 나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경영과 돌봄은 결혼 이후 가족원이 생겼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연령부터 습관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독립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와 돌봄 관련한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시절까지 학습에 집중한 지금의 청년세대가 가정관리나 자기돌

봄에 익숙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인가구가 더 증가할 상황을 예측할 때 가정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가정관리 및 돌봄 영역의 세부항목별 시간량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식사활동시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시간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식사시간 자체는 남성이 더 길지만 식사준비나 뒤처리 시간은 여성이 더 길다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서지원·양진운, 2017)의 결과처럼 가구형태를 불문하고 가사 및 돌봄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관리와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부담이 더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가시간의 축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생활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생활시간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루 24시간 중 어떤 영역에 투입하는 시간량이 길면 당연히 다른 영역에 투입되는 시간량은 짧아지게 되는데, 이는 4개 생활시간 영역에 대한 시간배분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게 나온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역할, 돌봄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 또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본 연구에서는 성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첫 번째 논의점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가정관리나 자기돌봄의 프로그램 개발 시 남성 청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TV등 실시간 방송 보기가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로 나타났는데, 노동 대비 여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삶의 질이나 행복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년 1인가구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가활동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청년 1인가구의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별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특수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의 프로그램, 제도와 정책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시간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그 중에서 식사와 여가에 주목하였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생활시간 영역의 시간량,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여가관리·시간관리·가정경영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과 상담에 투입되는 전문가 양성 및 배출 등 다양한 과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 37(2), 184-216.
- 2) 강은주(2017). 노인 1인가구의 여가생활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3) 고지영·이연숙·안소미(2015). 농촌 주거취약 청장년 1인가구의 심리적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4) 김도희(2015). 검색데이터 분석의 사회과학 연구에의 적용과 시사점: 청년 1인가구 생활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75-95.
- 5) 김외숙·송혜림·조희금·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 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25-43.
- 6) 김은경·조춘한(2015).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1인가구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6(4), 231-263.
- 7) 김태주·안정근·정오락(2015). 농어촌지역 1인가구 주택공급 방향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5(5), 1199-1207.
- 8) 김현아·조영아·김요완(2014). 탈북 1인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4), 321-354.
- 9) 김희연(2016). HMR 상품의 선택속성이 1인가구의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온라인 리뷰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22(8), 109-121.
- 10) 뉴스핌(201.10.6). 나혼자 산다, 1인가구용 '일코노미 재테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29000299>.
- 11) 네이버 이슈(2016.2.20). 1인가구가 바뀌놓은 먹고 살고 노는 풍경. <https://blog.naver.com/mychefnz?Redirect=Log&logNo=220635367876>.
- 12) 박근화·김지학·곽신석·이충희(2015).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문화소비지출 추세비교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495-2508.
- 13) 박문수·정호근·김화년·고대영(2015).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987-994.
- 14) 박수연·김영주(2013). 1인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서비스 요구 분석 - 2000년 이후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15) 박재홍·유소이(2016).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식품소비행태 및 식생활 만족도 분석. 농업경제연구, 57(2), 103-138.

- 16) 박현우·나건(2015). 1인가구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외식업 서비스 방향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697-704.
- 17) 배건이·정극원(2014). 1인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4, 157-176.
- 18) 서명희·김영희·이현옥(2017). 1인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718-727.
- 19) 서지원(2017).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분석: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2), 25-50.
- 20) 서지원·양진운(2017).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사용구조와 주관적 시간빈곤: 부부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5(5), 451-463.
- 21)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181.
- 22) 송완구·임지은·도해용(2015). 1인가구의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30(6), 193-216.
- 23)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의 특성: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 24) 송혜림(2016). 건강가정정책의 트렌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25) 송혜림(2017). 가족정책의 동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종사자교육 자료집.
- 26) 신미림·남진(2011).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국토계획, 46(4), 131-145.
- 27) 신상영(2010).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대한민국통계학회지, 45(4), 81-95.
- 28) 심애리·박성신(2017). 군산시 노인 1인가구의 현황 및 커뮤니티센터 요구도 분석.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9(4), 29-40.
- 29) 어경은·김승인(2016).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브랜드 발전 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8), 393-398.
- 30)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2016). 1인가구 보고서.
- 31) 엠브레인 리포트(2015). 1인가구 관련 조사.
- 32) 연합뉴스(2017.4.13). 청년 1인가구, 10평 집에 살며 1년 3개월만에 이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2/0200000000AKR20170412169600003.HTML>.
- 33) 염혜실·권오정(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웨어하우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5(6), 123-132.
- 34) 우민희·이명진·최선헌(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201-231.
- 35) 원종현·정재은(2015). 소비가치에 따른 1인가구 세분화와 구매행동: Sheth의 소비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6(1), 73-99.
- 36) 윤소영(2017). 노년 1인가구의 여가적 삶과 행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37) 은기수·김외숙·조희금·송혜림·서지원·김은지·차승은(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통계청 위탁연구 보고서
- 38) 이선희·윤동현·고준환(2015).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3(3), 11-21.
- 39) 이은주·권오정(2015).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에서의 스마트홈서비스 선호도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234-3571.
- 40) 이재수·양재섭(2013). 서울의 1인가구 특성과 거주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향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48(3), 181-193.

- 41) 이지유 · 신애선(2015).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를 이용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채소와 과일 섭취 비교. 한국영양학회, 48(3), 269-276.
- 42) 이철성 · 김장현(2016). 식료품 쇼핑에 있어 일인가구와 1인가구의 충동구매 차이. 한국물류학회, 26(1), 111-126.
- 43) 이현정(2012). 한국과 미국의 1인가구 특성 비교.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44) 장연주 · 이기영 · 최현자(2012).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95-211
- 45) 장용현 · 이보순 · 이종호(2016). 1인가구 형태의 식생활유형이 외식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2(5), 25-36.
- 46) 정운영 · 정세은(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31(4), 1119-1134.
- 47) 조미라(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한국인구학, 39(1), 29-57.
- 48) 조영희(2017). 1인가구 시대, 가족자원경영학 적의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년 추계 학술대회 기조강연.
- 49) 조필규(2016).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1(4), 321-331.
- 50)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51) 최민영 · 김승인(2017).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소셜로봇의 역할에 관한 고찰: 1인가구 생활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295-300.
- 52) 최은정 · 박수빈(2017).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수납가구 사용 요구에 관한 연구-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8(1), 27-36.
- 53)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54)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 빈곤통계연보.
- 56) 한국일보(2017.10.6). 1인가구가 이렇게나... 소형 오피스텔이 답이네. <http://www.hankookillbo.com/v/830dfe7b9c134e518453ac50647e2b05>.
- 57) 허윤경 · 심기현(2016). 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9(5), 735-745.
- 58) 호정화(2014). 비혼과 1인가구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37(4), 25-59.
- 59) 황성은 · 강부성 · 박지연(2013). 주택유형별 1인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4), 9-17.
- 60)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7). 2017 한국 1인가구 보고서.

- 투 고 일 : 2018년 03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3월 29일
- 게재 확정 일 : 2018년 05월 27일